



英 동성애법관련 종교 표현의 자유 억압

‘동성애는 죄’ 영국서 설교, 美 선교사 체포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설교한 것 때문에 체포 및 구금됐던 미국 북음주의자가 ‘영국 등 서방 국가의 상황은 이미 ‘공산주의화’ 되었을 정도로 나빠졌을 뿐 아니라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이언 시아보씨는 7월 2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설교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인인 시아보 선교사는 런던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으며, 광장 등에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사역을 해왔다.

시아보 선교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저주 하던 대로 7주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30분 정도의 메시지가었다.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권리가 있었고 생각되는 많은 주제들을 다룰 수 있으며, 한 번은 동성애와 성



전환주의(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해 말했다. 동성애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고교 성전환 주제가 현재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매우 어린아이들에게 강요되고 있기 때문

이라고 했다. 시아보 선교사는 “무엇이 기발한 것인지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레즈비언으로 추정되는 한 젊은 여성이 매우 분노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왔다”고 했다.

4단계에서도 대면예배 99명까지 가능해

9(월)일부터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 시설규모 형평성 반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대면예배 및 대면 종교활동이 99명까지 허용된다.

장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4단계 조치를 8월 9(월)일부터 22(일)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예배 등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용인원이 100명 이하인 곳은 10명까지 가능하다. 그외 모임·행사외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코로나19 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이 발표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다.

정부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인데도 행정지원과 함께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아 형평

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강당, 발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벌(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비대면이 유지된다.

나라사랑국민연합 수요기도회 열어

나라가 바른길로 가지 못하면 교회가 바로잡아야...

나라사랑국민연합대표회장 한정수 목사, 이하 14사면은 지난 7월 28일(수) 서울 강남구 선릉로 112(일) 50층성당 일동교회에서 수요기도회를 열고 일차와 연회를 통한 국가의 안정을 위해 기도했다.

제1부 예배는 사무총장 정대수 장로의 사 회로 피터 박 목사의 대담기도 이경현 장로의 성경봉독, 92세의 찬양시역자 채연희 권사의 특수, 랩 7:16-1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영구 목사(안남열교회)가 “나라가 범죄 하면”이란 제하로 설교했다.

한 목사는 “미국은 3대 포도마제퍼슨 대통령은 처음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만들었다”고 전제하고 “첫째로,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둘째로,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셋째로, 세상 대통령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일제 강점기 때 정교분리의 원칙 3가지



를 의도적으로 빼먹고 정치와 교회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들어오게 하였다.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의 끝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거짓말의 정교분리의 원칙을 원해서로 회복하게 하였다. 세월이 가면서 교회와 정치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변질되었다.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 교육, 등 여러분야에서 빛과 소금의 사

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부 기도시간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19 종식을 위하여, △대통령과 정치인을 위하여, △기독교 기원과 대표를 위하여,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세계선교와 북한 선교를 위하여, △나라사랑국민연합의 성장을 위하여, 한상수 장로, 이현연 목사, 이재정 목사, 최정재 목사, 김진호 목사가 각각 기도했다.

예성, 리유스(REUSE) 사역 실시

지혜로운교회에 음향 및 영상기기 전달

예수교대한성경교회(총회장 이상문 목사) 리유스사역위원회가 최근 리유스사역을 시작하면서 기증받은 물품을 배분하기 시작했다.

지역의 첫 사역을 기념하여 총회장 이상문 목사와 총무 이경준 목사는 지난 7월 19(일) 1호 교회로 선정된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지혜로운교회(이신복 목사)를 직접 방문하여 음향 및 영상기기를 전달했다.



교회 개척 후 그동안 인근 군부대교회의 기타용 소형 램프를 빌려 예배드린 이 목사는 “이번에 후원받은 음향기기와 영상장비로 예배가 한층 더 은혜로워질 것을 기대하며, 개척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 총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이날 예성서울복지교회 임원들도 함께 방문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100회기 총회부터 교단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성 리유스사역은 교단 내 교회와 기관에서 사용된 중고물품을 기증받아 수리 후 필요로 하는 교회에 나누는 사역으로 물품 기증과 함께 후원금 기부를 통하여 누구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성누가회, 대학생들과 함께 의료봉사 사전모임

약 1,000명 자원봉사자 모집, 400명이 온라인 사전모임 참석

의료선교회 성누가회가 7월 18(일)요일과 25(일)요일 약 400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의료봉사 사전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성누가회는 초·고교 북음주의 기독교의료선교회로서 한국교회연합의 회원 단체이기도 하다. 성누가회에서는 10년 넘게 합동원전 주라는 의료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료라는 달란트를 통해 기쁘고 소망된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는, 성누가회의 의료선교 프로젝트다. 힐링캠프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의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혜택을 받아 왔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약 2년 동안 의료봉사 활동이 중단됐다. 이는 다른 의료봉사단체들도 비슷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병원진료가 더욱 어려워진 소외계층이 생기기 시작했다.

힐링캠프에 참여하는 각 지역봉사자는 의료봉사와 준비를 위해 성누가회에서 준비한 교육 동영상 시청하고, 의료봉사 직전에는 의료봉사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받을 예정이다.



정이다. 성누가회에서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지키며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 조처를 발표하거나 전제지반의 불발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정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누가회의 대표인 신명성 치과의사(성누가병원 치과 원장)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의료봉사의 의미가 끝일 위기에 있다. 하지만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의료봉사에 참여

하려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음을 직접 보게 되면서, 미래 의료계에 희망을 보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성누가회에서는 힐링캠프 의료봉사에 참여할 의료인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를 모집하고 있다. 힐링캠프에 참여하기 원하는 의료인은 힐링캠프사 이트(http://healingdoctors.org)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의 전면 대면예배 금지는 헌법 위반

도 넘는 예배금지, 교회탄압 헌법소원 제기

사법제일교회 전명훈 목사와 감축성 전 한국한성교회장 국민투표단은 지난 7월 28(일) 오후 2시 사법제일교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지침은 위헌금지헌법과 ‘불합치’ 헌법제1조,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면예배 전면금지는 방역목적에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전면금지라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국책법률 금지 원칙에도 이보다 덜 제한적인 조치로 방역목적에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전면금지를 한 것은 과잉된 조치에 위반되며, 본질적 침해금지에도 위배된

다고 정부의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발은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전면금지 조치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 중 ‘종교 실천의 자유’를 내용 없는 빈껍데기로 만들어 종교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는 TV를 통해 영화 한편 보듯 정성 없이 예배를 보는 것이라면, 대면예배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백화점도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더 많은 시간 머물고 있는

데 제헌헌정 외에는 다른 제한이 없고 학칙이나 기타 법령에 따라 백화점만 일시 봉쇄를 한다”라며, “본래로 교회 특히 사법제일교회는 제헌헌정은 물론 자치단체규정을 하고 예아자를 통하게 하는 2중, 3중의 방역을 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한술씩 따서도 안도록 하는 등 거리두기만 면을 기할 때도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불허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들리 지난 7월 28(일) 성북구 사법제일교회에 대한 10월 간의 의료영양중단 조치 불사한 예고한 것에 대해서 “윤영중단조치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질타 밝혔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카메룬 여성 위한 드림스쿨

“경제적 자립의 기회 소멸, 교육 가뭄… 아프리카 땅에 꿈의 학교 열린다”

국제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우원식)은 카메룬에서 사학복지공동체로 지역기탁사업인 ‘현승원’이 아니라 드림빌 프로젝트 3호로 기아대책 아프리카 여성직업기술훈련학교(이하 드림스쿨) 건축사업의 신축공사(Dream Builder Project in Cameroon)를 시작했다고 지난 7월 28(일) 밝혔다.

카메룬 아다마우아 주(州)의 은가운데레 시(市) 베키호제비 마을에 들어서는 드림스쿨은 2022년 6월 준공을 마치고 한지 여야 청소년에게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다마우아 주(州)는 학급 당 학생 수가 91.2명으로 카메룬 내 두 번째로 교사 수가 부족한 지역이다.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 있는

이곳은 조혼 강제 결혼, 아동 노동, 가부장적 문화 등의 이유로 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으며 지역 내 15~24세 여성의 문맹률이 8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아대책은 이번 카메룬 드림스쿨 건립을 통해 ▲학교 시설 ▲교육 비용 ▲내부 기자재를 구축하고 경제적 자립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저소득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학교의 시설은 교실 8칸, 실습실 3개, 동 다목적 공간 2개 등, 식당 1개 등, 화장실 5칸, 창고 4칸 규모로 설립된다. 내부엔 교육 진행을 위한 책상과 더불어 컴퓨터 기기 등의 교재까지 구비될 예정이다.

안정적인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수인 제제도 마련했다. 기아대책은 카메룬 정부 기준에 부합한 전문 교사를 12명을 채용하고 재봉·컴퓨터 두 개 분야의 기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삼성SDI와 과학환경교육

2019년부터 취약계층 아동에게 환경·에너지 과학실험 체험교육 제공

수원시 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박찬영(2세 기증) 아동은 “과학실험을 할 수 있게 해서 너무 설레요”라며 큰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2020 삼성SDI 푸른별 미래과학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때문이다. 아동중요대표기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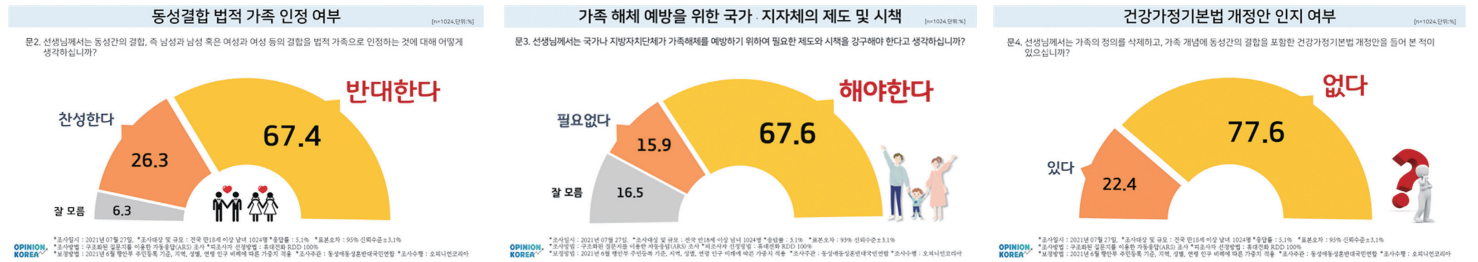
(회장 이재훈)은 지난 7월 28(일) 수원시 전현정 에너지·소재·토박 솔루션사업 삼성SDI(주) 대표이사 전명현과 함께 과학환경교육의 일환으로 환경·에너지 관련 과학실험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푸른별 미래과학교육을 실시한다.

“푸른별 미래과학교육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 하는 삼성SDI의 대표 CSR 프로그램이다. 삼성SDI는 전국 사립초·인근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평소 교과 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과학 실험 및 실용 등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과학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을 증진시키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정월 1회 전문강사와 삼성SDI 임직원 보조 강사가 각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과학교육을 실시하고 함께 실험하며 토의해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되는 일반교육과 더불어 연 1회 아동들을 화사하고 초창해 과학캠프도 진행한다. 아동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푸른별 미래과학교육에 참여하여 아동은 총 4,288명이 이른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결과 발표



동성애동성혼 반대국민연합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여론이 68.8%, 찬성이 22.3%, 잘모르다가 8.9%로 국민 10명중 7명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은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이다.

▶ 이번 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조사(7월 27일(화)에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GAB노자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51.1%, 2021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결과요약

- 비혼 동거 법적가족 인정 여부에 대해, 반대한다 67.4%, 찬성이 22.3%, 잘모르다가 8.9%로 국민 10명중 7명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 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 여부에 대해, 반대한다 67.6%, 찬성이 15.9%, 잘모르다가 16.5%로 국민 10명중 7명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지 여부에 대해, 77.6%가 인지하고 있다, 22.4%가 인지하지 못했다.

가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찬반 여부에 대해, '반대한다' 68.8%, '찬성한다' 22.3%

1. 비혼동거 법적 가족 인정 여부

비혼동거 법적 가족 인정 여부 부정응답이 45.3%

잘모름 13.8%

비혼 동거 법적 가족 인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서울 지역이 가장 높은 62.7%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은 오히려 비혼동거 법적 가족 인정에 대해 '찬성한다'

는 긍정평가가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

로는 남성이 47.8%로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

령별로는 40대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54.3%로 나

타났다.

2. 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

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 여부에 대해, '반대한다'

는 응답이 67.4%

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에 대해 지역별로는 대

전/세종/충남/북이 77.6%, 광주/전남/북이 75.9%로 가장

높게 반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77.6%로 가장

높게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6.5%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20대에서는 49.3%가 찬성하고 응답했다.

3.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제도 및

시책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제도 및 시책

에 대해 '해야한다'가 67.6%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제도 및 시

책에 대한 질문에 '해야한다'는 응답이 경기/인천에서

가장 높은 73.0%로 나타났으며 부산/울산/경남에서는

57.4%로 낮게 나타났다. '해야한다'에 대하여 여성은

68.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72.9%의 응답을 보였다.

4.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지 여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지 여부에 대해, 77.6%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인지 여부를 지역

별로 보면, 지역별로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대전

/세종/충남/북에서 가장 높은 82.0% 비율을 보인 반면

강원/제주에서는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41.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

이 80.4%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상

에서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83.6%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5.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찬반 여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찬반 여부에 대해, '반대한다'

68.8% '찬성한다' 22.3%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찬반 여부

문5. 선생님께서 가족의 정의가 삭제됨으로써, 동성결혼, 즉 남자녀를, 여자사위도 인정할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22.3, 반대한다 68.8, 잘 모름 8.9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대한 찬반 결과, 지역별로

는 대전/세종/충남/북이 가장 높게 76.9%로 응답을 보

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반대한다는 응답이 77.4%로 나

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82.7%로 가장 높게 보였고, 찬성한다는 응답에서는 20

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조사에 실시한 여론조사로

비혼 동거 법적가족 인정 여부, 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

지 여부,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제도 및

시책,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지 여부 및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 찬반여부에 대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화)에 무선 RDD,

전화번호 무작위 생성을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며, 응답률은 51.1%다. 통계보정은 2021년 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셀가중)를 적용했다.

2021년 7월 30일

동성애동성혼 반대국민연합

교회폐쇄법,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교회집자가 철거 등 반대

“2021년 제 5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동웅 목사)는 2021년 제 5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지난 7월 29일(목) 오전 7 시 30분에 전경교회(담임 장영환 목사, 본회 부회장)에서 개최하고 헌법도 경건하지 못한 일들로 매 우 혼란스러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 도록, 우한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 에 대한 방역당국의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 되어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실무회장 박노선 목사(삼광교회)의 사회로 시작되며 먼저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온양 은혜와진리교회)의 환영사가 있었다.

진 목사는 환영사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 을 바라보면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여 위기의식을 직시하지 아니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 한 이때에 지난 6년 반동안이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여 적극 동참하여 주신 회원들 을 지하고 격려하면서 기도에 더욱 힘을 모아 줄 것 을 당부했다.

이어서 대표회장 진 목사는 “이때를 위하여 우리 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여 민족복 음화에 앞장서자”고 역설하면서 복음화지혜하고 탄 입하는 정부의 정책은 사정없이 하며 종교의 자유 를 탄압하는 정책인 주민자치기본법, 차별금지법 등 성채법, 코로나19를 위한 교회 폐쇄법, 건강가정기 본법, 교회집자가 철거 등은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 유를 박해하는 불법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될 일들이므로 함께 기도하고 적극적 으로 대처하면서 복음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계속해서 유원희 인도소 장로(온양온전교회)의 대표기도와 서기 정수희 목사(우정교회)의 성 경봉독이 이어 분회 상임회장 이승수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이 목사는 복 15-3-7 법을 본부로 영 혼 구원이란 제의의 설교를 통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쁨을 받고, 근대적 행위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



해야 하는 것이 불신인 것처럼, 교회의 불신은 영혼 구원이 아니다. 잃은 양 한 마리라는 화제가 열렸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구원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그 일 에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민족복 음화운동본부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 건강한 교회를 세어나가는 것은 물론이요, 한 영 혼대 나라가 나라와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 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본진 을 잃지 않는 목사, 장로, 성도가 되기를 부촉한다” 고 했다. 이어 부회장 장영환 목사(온양온전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2부 보고회 및 세미나 시간은 상임회장 이 정발 목사(삼광교회)의 사회로 시작하며 분회 지부 위원 이영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의 주민자치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한 헌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홍서용 목사는 연



합하는 아산시의 코로나 방역에 따른 교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총련동기독교연합회 서기 정현원 목사(면 베로온교회)는 지난 7월 27일(화) 베로온교회에서 있었던 ‘주민자치기본법 승찬’ 진심’ 세미나 설명 회 후반대를 위한 운동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설명회에서 장 목사는 주민자치법 조의 ‘주민’의 정의를 종전의 읍면동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는 자에서 아예이 제정된 주민등록지 살고 있지 않아 도 그 지역의 직장, 학교, 기업 등에 근무하는 직장인, 학생, 학생 모두가 그 지역의 주민의 자격을 갖게 된 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마을 공동체의 대표 선출 이 추천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파의 추천은 미미 하게 되고, 좌파는 적극 추천되어 지지 위임과 장 은 이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결국 지역은 좌파 세 려이 장악하게 되는데, 이것이 좌경화, 민노총이 주 장하는 불평등 민주주의로 그들이 전국을 장악하



를 위한 수단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이 하나로 진보 와 보수,의 전쟁이 아니라 좌파와 우파의 전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좌파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저들이 체제를 바꾸고자 하 는 숨은 의도가 들어 있는 주민자치 기본법의 취지를 바로 알고 이를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 통 과 되면 좌파의 대안은 교회와 무관하며, 기업인, 가업인이다.

이 밖에도 8조 1항에 성별 종교에 차별을 받지 않 는다는 조항이 결국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등은 그들 의 주민자치기본법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소조항으로 주민자치회의의 권한으로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서이런 제도의 공무원은 개개인이 요청에 따라 수에 없는 상황에 모든 것을 좌파들의 독선적인 사회주의 사상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기에 이러한 것들 국민들에게 알리고 막아야 한다. 우리는 오직 성



경 말씀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는데 각 교회와 목사님 장로님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3부 기도회로 상임회장 임용석 목사(아산 중앙교회)의 인도로, 주례 기도 시간을 가졌다.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광복절 기도(주원회), 2) 중구 우원(주원회), 3)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구구법 목사(부회장), 4) 아산시 발전과 지도자를 위하여 최상근 목사(지도위원), 5) 50여기인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박 처영 목사(지도위원), 6) 교회폐쇄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폐지를 위하여 박재호 장로(주원회), 7) 국민복을 위하여 이세경 장로(주원회)의 기 도가 있었다. 이어서 사무총장 정진화 목사(영서교회)의 광고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장소를 이동하여 분 회 회계 박관수 목사(영서교회)가 준비한 조찬을 나 누며 교제 시간을 가졌다.

■ 생명의 말씀 ■



양정섭 목사

· 평안교회 담임
· (사)한국기독교교회계교단
협의회 대표회장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 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사람이 하나 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두 가지 면 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본문 32절 “유대인에게나 헬 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 가 되지 말고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 것은 영광도 어디서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 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기 때문입니 다. 우리는 말이나 행위로 교회에서나 형제 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람이 되 고 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 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 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조적인 사람은 하나님만을 존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 인가에 대하여 묻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 보고 그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입니다.

1.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를 위하

여 존재하는 것이 바른 원리입니다. 이 세 상 모든 피조물은 자기위에서 조화를 이 두며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칭송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모든 피조 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이 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사는 것이 인생에 본분입니다. 사람 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 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것이 모든 사람의 임무입니다.

3.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사는 것 이요 그러므로를 닮아 사며 변화되어 살아가며 축복된 삶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하

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역시 불완전 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 지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 겸손히 주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 들이 되어야 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자 하면 죄를 항상 철저하게 회개하고 양심을 깨끗케 갖 고 진심만을 행하고 말하며 선한 열매를 맺어 야 하고 경건한 시간을 갖고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는 것이 인 생의 참다운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행복 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헤매는 다. 그러 나 사람은 세상 것으로는 다 얻고 누리도 참다운 행복은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고민과 걱정이 커지고 불 안하고 괴로움 수백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행 복을 찾아 누리고자 하나 번민과 괴로움과 고독과 후회와 슬픔뿐입니다. 그것이 슬로 문이 증가한 말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허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의 수단과 방편으로 수고와 노 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 다. 사람의 모든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막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해서서 독생 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로 해결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돌게 하시 는 역사 속에 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 면서 사시다가 주님의 영광을 받는 행복인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동 정

국제목양사역원, 온라인 콘퍼런스



국제목양사역원

(원장 최홍순 목사) 은 지난 6월부터 담 임 목사 부부, 부교역 자, 장로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2021 목양(목사, 장로) 사역 온라인 콘퍼런 스’를 진행 중이다. 매번 콘퍼런스를 진 행하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사 역원 홈페이지에 강의 영상을 올려 시 청하도록 했다.

이정훈 교수 ‘전략적 대응’ 제언



이정훈 교수

이정훈 울산대 교 수(행정학연구위원) 가 대면 예배를 제한 하고 있는 정부를 상 대로 보다 전략적 대 응을 할 것을 요청했 다. 이 교수는 지난 8월 4일(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데 동의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불공 정 정치개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 고 했다.

예장통합 사무총장에 김보현 목사



예장통합총회

예장통합총회(총 회장 신철호 목사)는 자기 사무총장에 김 보현 목사(총회 파송 영국 선교사)를 선임 했다. 사무총장 임기 는 4년이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8월 3 일(화) 105회기 11차 회의를 열고, 남윤 희 목사가 사퇴해 6인이 된 사무총장 후보들의 비전 발표와 영어 스피치 등을 청취한 후 김보현 목사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중앙총회, 류금순 총회장 단독



중앙총회

지난 7월 26일(월) 중앙총회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임성자 목사·이하 천원)는 53회기 총회장 후보 등록 접수가 지난 26 일로 종료됨에 따라 현 류금순 총회장의 후보등록 접수와 이영희 신학인준심의 위원장의 후보 등록 철회에 따라 제 53회기 총회장 후보에 류금순 현 총회 장이 단독 출마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국민을 선동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역사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우리 역사를 왜곡 하거나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제 잔재’라며 교실의 태극기도 없 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친일잔재 청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친 일 잔재로 규정할 내용을 모은 것이라며,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이런 내 용들을 보냈다.

그 중에는 교실에 걸린 태극기마저도 ‘일제에 충성심을 고조했던 것에서 유래했 다’며 철거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또 ‘파이팅’은 일본군에 제2차 대전이 출전할 때 사 용한 구호로서 바꾸야 하며, ‘수하야행’ ‘소풍’ ‘수련회’ 등도 일제의 잔재이므로 바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 들에게 존경을 받고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 주 역할을 해야 할, 공백화장 김원웅 씨가

학생들에게 보내는 영상을 통하여 ‘소년은 해변로, 미군은 정령관’이라고 하여 큰 반 란이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명정 경기도지사로 큰 무릎 하였다. 그는 올해 3월 22일 1절을 맞아 페이스북에서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곡가가 만든 경기도 노래를 폐지할 것처 럼, 올해를 경기도 친일 청산 원년으로 삼 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현재 이재정 지사 는 자기 대권 후보로 나서고 있는데, 어떤 예언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 지사는 최근 대선 후보로 나 서면서, 미군을 ‘정령관’이라고 하였다. 이 지사는 지난 2017년 출간한 자전적 에세이 이라도 한반도에 사드 배치하는 문제를 두 고 동화책형 당시를 떠올리는데, 미군이 우 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었다.

그런가 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 패

국 세력의 야비자’로 규정했다. 뿐만 아니 라, 올해 3월 22일 1절 기념사에서 우리나 라의 건국에 대하여 ‘첫 단추를 잘못 끼웠 다’는 말로, 국가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 경하는 박정 김구 선생이 해방 이후 이승 만 대통령을 ‘독부’ (獨父)라며 존경해마지 않았고,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진보 좌파의 계보를 잇는 고 김대중 대통령도 1997년 대통령 당선 직후, 첫 연설으로 이승만 대 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것에도 거리가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로 인하여 건국된 이 나라에서 초대 국회의장이고, 첫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말 하는가?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가 대대 로 일어 나시라는 전제(前提)국가에서 자 유민주주의 국가로의 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한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추앙과 존경

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의 야비자’로 몰아간다는, 그런 인식으로 대통령 을 하겠다는 말인가? 참으로 이상한 일이 다. 이런 발상과 발언은 1948년부터 북한이 주장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 타도’ 라는 구호와 같은 것이고, 1980년대 좌파 진영에서 선동했던 말들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이승만 대통령의 평가는 대단하다. 해방 이후 가장 먼저 조직된 당을 만들었던 공 산주의자 박헌영조차도 이승만을 그들의 주석(主帥)으로 추대할 정도로, 가장 훌륭 하고 뛰어난 독립운동의 지도자였음을 틀 린없다.

그런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느닷없 이 ‘친일 청산’이라며, 국가를 상징하는 태 극기 계양을 ‘친일’로 몰아간다고, 자기 대권 의 유력한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

방 건국을 도왔던 미군을 정령관으로 매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 지사가 과거 건국의 야비자’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 패국 세력의 야비자’로 몰 아간 주장에 대하여 국민들은 얼마나 속이 넓어질까? 비록 친일 역사관을 가지고 아무 리 선동하고, 꾀하여도 국민들은 흔들리 지 않는다. 왜곡된 역사관은 국민을 속이는 것인데,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자멸 (自滅)을 부르는 것이다. 또 국민들로부터 공분(公憤)만 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재정 경기도지사가 말 한 대로, 미국의 정령으로 식민지가 된 것 도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미국을 하여 나라가 넘어간 것도 아니다. 아직도 역사 인식의 후진성 탓에, 북한이 주장 하는 선동과 역사 왜곡의 유장(優長)으로 는 국민들의 여망(輿望)을 충족하기에 매우 부족함을 느낀다.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For your Healthy Life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 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고생대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신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은 지난 1월 25일(금) 한의원, 카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추가로 완공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고단 부산지방법원 중경회장 한경원 박사와 고영권 박사 등이 참석하여 축복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 A, B)온돌, 단체룸)



하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성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익로길로 479번길 43

과학과 신학, 의학으로 창조신앙 조명

한국창조과학회 40주년 '창조신앙 바로세우기' 주제 학술대회 개최

한국창조과학회(회장 이종호 교수)가 '한국교회 창조신앙 바로세우기'라는 주제로 오는 8월 27(금)~28일(토) 양일간 '2021년 한국창조과학회 4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올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매년 8월에 개최하던 학술대회를 일정을 늦추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첫날 학술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40주년 기념 감사예배는 이종호 목사(누리교회)가 설교말씀을 전하고, 이종호 회장이 비전을 선포하며, 창조과학 발전 시와 축하메시지 영상이 이어진다.

정한솔 교수(부산대학교 한의학전통문화학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신화론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과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김병문 교수(함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지신학)와 이신철 교수(고신대학교 신학과), 한윤복 교수(연세대학교 화학공학부)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해외 창조과학의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도 갖는다. 둘째날 세션에서는 김하영 총장(함동신학대학원대학교)이 '한국교회 창조신앙 세우기'를 주제로 강의하고, 세션에서는 '다윈시대 창조신앙 세우기'라는 주제로 이아하와 청선진, 대한학교 프로그래밍 및 발전적 협업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스그아 우주를 창조한 이유-유대교 교



수(한양대학교 철학융합학과) △창조신앙 동아리소 연대축전(을 통한 지구연대 결정의 근본적인 문제-박재원 박사(미래교회도전 이사) △성경의 무오성과 영감론-이승구 교수(함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지신학) △자연신학으로서의 지적설계와 유신화론의 한계-김병문 교수(함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지신학) △인간에 감추어진 설계와 영성-백영은 교수(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Peptide Synthesis : Abiogenesis vs. Biogenesis-정선호 교수(연세대학교 시스템생명공학) 등 다양하고 심오한 주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종호 회장은 "한국교회의 창조신앙을 바로 세우는 한국창조과학회 가 되기 위해 목표 현장과 섬기는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 요약지와 목회자, 성도, 청소년,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며 70년 학술대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창조신앙 회복이 확산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첫날 진행되는 행사는 유튜브 라이브 중계로 무료 시청할 수 있지만, 둘째날 세션들은 참가비를 납부한 사전 신청자에 한해 ZOOM 플랫폼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 문의 02-419-6465 참가비 10,000원 <https://forms.gle/1on8z5cU68r5Rf5>)

미래목회포럼 / 8·15광복절 성명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종교탄압”

절반의 광복, 한국교회가 완전히 이뤄야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영호 목사는 광복 76주년을 맞아 8.15 광복절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차별 차별로 이웃 백성의 생명을 위협하고, 민족의 정신마저 송두리째 갈라놓은 일본의 압제 속에서 긴어들의 타살을 불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들도 밟고 있는 백성들의 나라를 잃은 아픔과 슬픔은 3.1만세운동 등 수많은 독립운동으로 소화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극적인 도우심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성명은 또 "회를 지켜낸 우리 선조들의 노여에 부응하게도 지금도 한반도는 진정한 광복이 아닌 절반의 광복만을 이었다. 6.25남침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은 다시 갈라졌으며, 분단의 상처는 오늘까지도 아물지 않은 채 그날의 아픈 기억만 되새기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남과 북만의 갈등이 아닌 우리 나라 안에서 쪼개지고 갈라짐'이라며 갈라짐을 아쉬워했다.

또한 '죄악'이론 논쟁 등에서 걸린 지역갈등, 쉼터법 철폐하지 않는 세태까지, 시대적오류의 극명하게 갈리는 남과 북, 갈수록 벌어지는 분부의 격차 등 수많은 사회갈등 요소들, 38선 일변의 압제 속에서 목숨 바쳐 일어난 광복이지만 온갖 개량과 점진의 이기심으로 끝나지 못한 채 분열과 갈등의 굴레 속에서 머물러 있음'을 안타깝게 말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일제의 탄압과 6.25 전쟁으로 멈추지 않았던 대한제국법치주의는 오늘도 또 평등법으로 인



해 가족이라는 기본개념마저 바뀌어버릴지 모르는 절체 절명의 순간에 한국교회가 할 일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해배의 자유'에 탄압받고 있는 지름이아발로 한국교회 하나가 된 목소리로 예배의 회복을 부르짖어야 할 때이며, 마찬가지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분명한 종교탄압으로 규정하고 한 목소리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믿음 안에서 수많은 애국선열들과 순교자들이 나라와 민족 복을의 진리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쳐 일어난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제는 한국교회 가 진정한 계승을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 오영호 목사, 이사장 정성진 목사, 총괄본부장 이상재 목사

성주 사드 배치 지연과 환경 열악 논쟁

사드에 관련한 3불 약속은 중국 종속 정책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중국에 내어준 굴욕이다

문재인 정부는 성주 사드 배치를 열악한 환경 속 에 배치하여 4년간 미국과 있음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 1주일 앞두고 5월 14일 그리고 정상회담 후 5월 30일 남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장비·물자를 추가 반입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사드 장비물자를 반입한 것은 미국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다. 앞서 미국 방정청은 '사드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계속 방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비이든 미 행정부의 미미한 안보공조 강조는 동북아의 새로운 정세를 예고해준다. 하지만 한국이 새로운 도전으로 준비해야 할 사실들은 많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국의 시 행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지향 외교에 우리가 얼마나 부응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동북·우방의 내 트외교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비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우연에 대해 군사 안보 비용 분담면에서 가치지향과 역할분담을 요구해 오고 있다. 원로 연례배우 강기미씨는 미국 방사 참전 용사비(이하 9월에 완공) 2천만달러 2천만달러를 쾌척했다. 살해·배는 정부의 성주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1. 사드 배치 지연과 환경 열악은 동맹국의 대가이다.

미국이 지난 2021년 3월 17일~18일 국무·국방장관 방한(訪韓) 때 국방부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에 대해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more acceptable)'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지장병들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공사까지 사드 반대단체의 저지로 수차례 지연을 보지 못하여 미국 측이 동맹에 대한 근본적 의심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2017년 4월 첫 사드 배치 이후 성주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 40여명은 여전히 낡은 옛것과 정글바람이 불어오는 환경을 속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자재·장비 반입이 사드 반대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대 시위로 대립되고 정부가 시설비를 부담하지 때문이다. 결국 도시락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식량수급도 크게 위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장병들이 동맹국에서 받아

장비를 운용하면서 제대로 된 주둔 여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대해 미국 당국이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미명만 갖기만, 문제만 남기고 주한미군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와 한미동맹에 대한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2. 중국에 굴복하는 친중적 한국정부의 탄압 악화에 대하여 분노를 유한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사드 장비를 성주 지역에 배치한 것은 2017년 4월이다. 하지만 이후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발로 장병들이 생활해야 할 막사 공사가 4년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사드에 민감하다는 중국을 의식해서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정지경대신 '문재인 정부가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핑계로 사드 기지 개선을 의지할 모욕'이라고 지적하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에 미국 MD(미사일방어)에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미중 등 3불을 언급했던 상황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를 보지 못하고 중국과 북한이라는 좁은 우물안에서 그려진 폐쇄된 안보정책이 아닐 수 없다.

3. 사드는 공짜로 받아야 하는 목욕탕에 비해 대한 중국의 안보에 악재 불리하다.

사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논란거리였다. 2017년 5월 집권한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47개 비공개로 추가 반입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보였고 '배우 총각적'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같은 해 6월엔 사드 부지에 대한 '절제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후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사드를 최종 배치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정부가 사드 운용 전성상에 있는 입장을 번거로웠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4년간 지난 40여년까지도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늦장무리는 국가안보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국제관계에 국력과 신용을 잃게 하는 것이다.

4. 대한민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바뀌는 한미동맹의 계속 강화는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미국 측에서 해양 국력으로 반신하고 다지된 공산주의로 옛날 중화

민족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진핑의 중국이 세계 전략 측면에서 반응을 보이는 우리나라 현실이다. 중국이 태평양을 두고 인도 태평양 경쟁에 뛰어들어 이 지역에서 전략적인 힘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물론 동중국해에서도 중국의 전략적인 군사 배치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마찰과 충돌은 이미 예상된 현상이었다. 그간 중국은 서방, 해양 세력의 약화를 기회 삼아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5. 외교적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하여 국민은 우려한다.

이미 정쟁한 바와 같이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한국에 대해 보여준 막무나내식 압력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의심하게 한다. 적인 6월 발생한 한·미·일 군사동맹 미중 등 3불을 중국이 약속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얼마나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문 정부의 약속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굴욕을 느꼈음을 알고 문 정부는 외교정책을 통해서 인정하고 이제 일기 해를 남은 국정운영에서 이를 수정하기 바란다.

6. 사드에 관련한 3불 약속은 중국 종속 정책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중국에 내어준 굴욕이다.

한반도 정세의 위기적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더 난감한 처지가 되었다. 국제외교무부에 서 중공국가에 영향력 발휘하기가 많이 주어진다는 사실과 함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사드 배치 지연과 배치를 지연하고 있다. 그러나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양자 대결의 거인 패권 싸움에

의해 세계정세가 재편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강대국들이 전통적인 국제 기준을 깨고,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제도와 틀을 주변 국가들에게 강요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강대국의 이해충돌 사이에서 약소국은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의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제사회에서의 선택은 자연스러운 현실이지만 강대국 사이에서의 양자대결은 외교적인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국제관계 무대에서 선택과 결단 없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중재자 역할이나 중립자를 맡게 보자고 나선다면 어떠한 위태로운 한양이다. 중국이 사드를 반대한다고 하여 중국의 반발과 보복이 무서워 미국 MD(미사일방어)에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미중 등 3불을 중국이 약속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얼마나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문 정부의 약속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굴욕을 느꼈음을 알고 문 정부는 외교정책을 통해서 인정하고 이제 일기 해를 남은 국정운영에서 이를 수정하기 바란다.

7.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G7 정상회의 참가 및 신대사상 선진 기기로 대중국 정책에서 전환하라.

미국이 시진핑 중국의 속셈 속 세계패권을 향해 도전하고 있음은 간파하고 있는 한, 두 나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미중 간에 협력과 충돌이 반복되면서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국지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은 중국 경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유입되고 있는 중화(中華)상국 요인이자, 대항이 우리에게서 그간 중국이 이익을 거머쥔 한미에서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학습기회가 있었다. 과연 중국은 한국에게 무엇이고 한국은 중국에게 어떤 나라인가? 지리적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한중 관계는 숙명적이다. 과거 역사로 보나 지금의 현실로 보나 중국은 우리의 생존과 통일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 한국은 정부가 아니라 중국은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다. 단지 중국과 달리하면 경제적 기회를 잃게 되고, 중국과 너무 밀착하게 되면 국가안보와 자유가 복속 당할 우려가 있는 모호한 관계만 남게 될뿐이다. 그들 국가가 비이든이 만들어준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초청해준 G7 정상회담 참가했다.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정 거리를 무제한으로 풀어주었다. 그리고 6월 11일~13일 G7 정상회담은 중국을 자유 진영에 대한 구조적 도전의 국기로 규정했다. 이제 한국이 설 곳은 분명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동안 2천만명만 한국을 속속으로 여는 중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지난 80년 동안 한국을 일제에서 해방시켜준 선택은 자연스러운 현실이지만 강대국 사이에서의 양자대결은 외교적인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국제관계 무대에서 선택과 결단 없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중재자 역할이나 중립자를 맡게 보자고 나선다면 어떠한 위태로운 한양이다. 중국이 사드를 반대한다고 하여 중국의 반발과 보복이 무서워 미국 MD(미사일방어)에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미중 등 3불을 중국이 약속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얼마나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문 정부의 약속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굴욕을 느꼈음을 알고 문 정부는 외교정책을 통해서 인정하고 이제 일기 해를 남은 국정운영에서 이를 수정하기 바란다.

8. 대한민국의 길 같은 친서방으로 열린 해양국으로서 동북아의 안보에 대한 기대

지금의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한 기대는 외교력을 발휘할 때이지만 우리는 많은 생각과 다양한 고려를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가장 나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이 세상에 서 가장 나쁜 지도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 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다. 탁월한 지도자는 시간과 기회를 혼동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방북시 중국을 큰 선택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작은 봉우리로 표현했다. 이러한 친중국 사대주의 인식은 대한민국을 이끌 국가 지도자로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세상에는 시간을 끌어야 할 때는 영웅한 결정으로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거나 그와 반대로 단호하게 할 때 시간을 끌어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세상은 지도자가 너무나 많다. 어정쩡한 조지한 친구를 만드는 것도, 적을 섬멸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난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여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위한 활로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의 지리적 생존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시진핑이 꿈꾸는 디지털 공산국가 중국은 결코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되지 못할 수 없다. 예까지 대한민국이 1948년 이후 걸은 자유민주주의에 심화, 이를 지켜준 1948년 한미동맹체 공고화, 그리고 조속한 북대안보체 합의는 2021년 6월 G7 정상회의가 지대한 자유진영에 제기하는 중국의 '구조적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길이다.

2021년 7월 12일

신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교단공과

출판헌금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 ②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 ③ 성인용 : 8,000원

특징

- 아동부 공과교재
-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②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③ 영어가 삽입되어 있음

공과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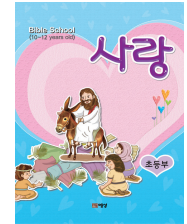
- ① Fax : 02)2677-5181, 031)441-1793
 - ② e-mail : aogk@aogk.org
 - ③ 입금계좌 : 농협 355-0053-3758-93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문의

전 화 : 02)2675-5181~3, 031)447-292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1 전국 여교역자국



정복위원장 조동욱 목사
은혜와 진리교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 감리교회



고문 정부영 목사
대림교회



자문 한순남 목사
순복음교회



국장 백영자 목사
복음순복음교회

조직

임원단

전국지부장



예배부장
기쁨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선교부장
토복교회
김순자 목사



복자부장
은파교회
이복순 목사



봉사부장
군암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홍보부장
대한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재정부장
성경교회
최정희 목사



행정부장
후계교회
김찬애 목사



기획부장
월산순복음교회
조영만 목사



행사부장
순복음교회
이명순 목사



친교부장
순복음교회
조은혜 목사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서울중앙교회 지부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가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니,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중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 (박흥열 목사 수석경력)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청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청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청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표청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청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읍면 금융로 82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청소년들 앞장 장기기증 문화 확산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청소년 대상 생명나눔 홍보단 모집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사장 박진탁)가 청소년들의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청소년 생명나눔 홍보단 '온택트 2기'를 모집한다.

앞서 본부는 지난 5월 청소년들이 생명나눔의 주체가 되어 장기기증의 중요성과 생명의 존엄함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온택트 1기'를 발족해 고등학교 생 14명이 수료한 바 있다.

온택트 1기 단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지난 7월 26일부터는 온택트 2기 단원 모집을 시작했다. 2기 단원으로 선발된 청소년들은 9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향후 두 달간 자신의 SNS를 통해 장기기증과 관련된 콘텐츠를 알리는 생명나눔 퍼스너로 활약하게 된다. 또한 뇌사 장기기증인 유기족이후 모뎀을 리를 만나 생애기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는 특별한 기회도 가진다.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하는 콘텐츠를 기획해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포레 캠페인 대상으로 장기기증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생명나눔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개선했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온택트 단원에게는 활동에 따른 봉사시간을 부여하고, 기관 위촉장 및 수료증 발급, 소정의 활동기대

제공과 우수 단원 포상이 주어진다.

온택트 1기로 활동한 김·원·영(09)은 지난 7월 10일 1기 수료식에서 '온택트 1생이 국민 0.1%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면, 온택트 1,000명이 모이면 국민 100%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며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모두 바뀌는 그날까지 온택트 활동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본부 교육사업팀 안씨는 '온택트 활동이 청소년들이 장기기증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생애기초 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생명나눔 홍보단 온택트는 전국 17세~19세 청소년 중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청소년이나 생애기초를 널리 알리고 싶은 청소년, 다양한 채널을 개인 SNS를 통한 장기기증 홍보가 가능 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15일까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www.donorkr.com)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 교육사업팀 02-363-2886, PL@donorkr.com)

신간 안내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 준비하라! 이 책은 환난과 재앙을 이기는 법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환난과 재앙에 초점을 맞춰서 두려움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저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 비유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려고 한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하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찾아보려고 한다. 성도는 성경을 보고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무서운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할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그 모든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재앙의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저자: 김남국 | 출판사: 규장

발행일: 2021-08-09 | (135*185mm 256p) | 판매가: 15,000원

성경과 그리스도인



성서학자인 R.W.L. 모달리 교수는 성경이 믿을 수 있는 책인 이유와 믿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논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성경이 비슷한 시기에 쓰인 다른 고대 문서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면밀히, 잘 알려진 예시를 들어 이해를 돕는다. 또한, 이를 통해 성경이 궁극적인 진리를 품는 책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수심에 빠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의 통찰력이 주요 학문적 논의와 최신 사례를 통해 성경에 대한 강력한 논증으로 빛을 밝힌다. 본서의 주된 논의는 신앙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신봉할 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원리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즉, 왜 신앙과 성경이 관련이 있으며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다룬 것이다.

저자/역자: R. W. L. 모달리/김영진 | 출판사: 요단출판사

발행일: 2021-07-16 | (152*225mm 304p) | 판매가: 17,000원

약속의 말씀들



당신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믿고, 믿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의 큰 복을 주신다. 당신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게도 믿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며 축복한다. 이제 아래에 기록된 기도를 믿는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과 입술말로 고백해 보기 바란다. 그 순간 영생(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허락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신다. 이 책은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는 주체별 성구 모음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전도용으로 아주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저자: 김경석 목사 편역 | 출판사: 나침반

발행일: 2021-07-16 | 사서판 288p | 판매가: 8,000원

교회의 소명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



레슬리 뉴비긴의 삶과 사역이 빛나던 선교적 교회론을 마음을 고쳐야 될만한 책이라고 발전시킨 책이다. 현대는 '후기 기독교 사회' 혹은 '탈(탈)기독교 사회'로 규정되지만, 교회에 대한 질문은 과거와 비교해 전혀 줄어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의 문명과 관련해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요구한다. 이제 교회론은 기독교 사회를 전제하여 현상의 탐구가 아니라 전통과 현상에 대한 질문, 실천과 성경적 원리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학문과 목회에서 병행해 걸쳐 레슬리 뉴비긴을 연구하며 따른 마음을 고쳐본, 뉴비긴에 대한 질문적 연구였던 20여 년 전의 박사 논문을 뒤늦게, 뉴비긴의 저작뿐 아니라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자료들을 활용하여 더 넓은 대중을 위한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을 내놓는다.

저자/역자: 마이클 고한/이종진 | 출판사: IMP

발행일: 2021-07-20 | (140*210mm 420p) | 판매가: 22,000원

아름다운 마지막 유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CTS 인터넷서널과 하나은행 업무협약식 가제

2010년에 CTS에서 설립한 비영리(NPO)체인 CTS 인터넷서널(이하 CTSI, 이사장 김정환)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과 7월 27일(화) 오후 3시 CTSI 13층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간이 이뤄진 이번 협약은 기부신앙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이뤄졌다.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를 출범하고 신박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과 시장을 선도하며 많은 경험으로 자신들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하나은행은 고객이 신박 등을 통하여 CTS로 기부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CTS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지정된 목적에 맞게 집행한다.

박성호 CTSI 인터넷서널 사무총장은 "사회적으로 유산 기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선교 사명을 위해 유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분들을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게 될 것임이다"라고 했다.

하나은행 서부영남본부 이현숙 지역대표는 "2010년부터 시작한 유산신박 경영을 토대로 CTS에 유산



상속과 꼭 붙는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더 많은 기부문화가 확산되며 발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내 인생 마지막 유산인 내 믿음으로 유산을 후원하

는 후원자들은 'CTS 레슬리클럽'에 가입되며 CTS 사역에 마련되어 있는 오프라인 공간에 사진과 핸드프린팅을 제공하며 가족과 후손들에게 또 다른 유산을 남길 예정이다.

월드비전, 베이루트 폭발사고 1주기 맞아 레바논 지원 요청

심각한 인플레이션, 가계 부채 증가, 자원 위기 등 위기 처해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영환)은 베이루트 폭발사고 1년이 지난 현재, 심각한 경제난으로 레바논 아동들이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4일 우려와 함께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해 8월 4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폭발로 20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월드비전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60여 개의 집과 10개의 학교를 수리, 4,000명의 아동과 보호자에게 심리사회적 지원을 펼친 바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레바논은 통제

식량·연료·의료 시스템 및 전력 부족 등으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현재 레바논 전체 인구 68만 명 중 절반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중 100만 명은 아동이다. 유엔은 약 150만 명의 레바논인과 40만 명의 아랍 노동자들이 약 3억 달러(한화 약 3천 6백여 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으나, 레바논을 향한 국제 사회의 긴급구호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레바논의 경제와 금융위기는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야기됐다. 지난해 폭발로 수도 주요 시설이 파괴되면서 위기가 더욱 가속화됐다. 레바논은 현재 정치

불안정, 대규모 시위 확산, 코로나19 대응형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레바논 월드비전 한스 테라스기 회장은 "레바논이 직면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는 극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생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 위기는 아동과 가족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바로 아동들"이라며 "코로나로 학교도 봉쇄돼 교육조차 받을 수 없어 미래의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월드비전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레바논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손길을 꼭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레바논은 이와 함께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난민과 2만 7천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난민도 수용하고 있다. 국민 1인당 난민 수용 수준을 세계 최대 난민 수용국으로 꼽힌다.

월드비전은 소득증대 사업을 중심으로 레바논에서 서가 지역개발사업을 펼쳐왔다. 현재까지 40만 명의 아동을 포함한 88만 명의 레바논 국민과 레바논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이 월드비전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월드비전 조영환 회장은 "월드비전은 지난 1년간 베이루트 폭발로 삶을 잃어버린 이들을 도왔다"며 "베이루트 폭발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마비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분쟁과 폭력적인 아픔이었던 레바논의 모습을 바꾸고, 아이들이 마음껏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6살, 네 꿈이 평생을 결정한다

아빠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직업



저자 김재현 목사

산업혁명의 포부를 얻 것은 신대륙의 발견으로 설명되는 항해술의 발달과 무관한 발견이었다. 당시 아프리카와 인도에 막혀 아시아로 가는 길에는 많았지만, 콜럼버스의 항해술의 발달로 무척 급진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어서 동양에 미치는 무역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우리는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 제2차 산업혁명은 기계, 기계를 이용한 대량생산 시대를 말하는데, 이때의 주된 주체는 단연코 영국이었으며, 영국이 주도한 제2차 산업혁명은 제1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대응하지 못한 많은 나라들을 식민 지배를 당하는 국가가 되어 오히려 동양 신흥을 해쳤다. 그런 피해를 입은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그다음 일어난 제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의 발명과 컴퓨터의 발명, 그리고 인터넷 시대의 발달을 통해 정보 기술 시대가 된 현재를 말한다. 대체로 우리나라는 제3차 산업의 정보기술의 혁명을 따라잡았을 뿐 아니라 선도하는 나라가 되면서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18세기 초기 산업혁명 이후 네 번째로 전환기를 맞은 산업 시대를 일컫는 말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드론과 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그리고 차세대 인쇄에



나노기술의 도입 등 6개 분야이다.

그 특징은 매우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이 예견하기에, 인공지능(AI)이 폭발적으로 발전하여 더 이상 인

공직을 스스로 지능이 발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특이점의 시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인류의 지능을 훨씬 초과해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된다고 한다. 특이점 이후 인류는 인공지능에 의해 통솔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니로봇의 도움을 받아 영생능을 누릴 것이라고 한다.

16살 꿈 많은 청소년이 주인공이 될 10년 혹은 20년 뒤에는 지금 하고 있는 공부의 대부분과 생애하는 직업의 대부분은 필요가 없거나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부터 '책의 물결'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을 이해하고 관심 분야를 정해 차근차근 공부해나가기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저자: 김재현 | 출판사: 대경북스

150*200mm 320면

부각 16,000원 발행일 2021년 1월 12일

구입번호 02/465-1988

해돋는마을, 대흥동 어르신 밥사랑 돌봄

매주 5회 무료급식 섬김사업 실시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비롯한 거동이 힘든 어르신을 섬기는 (사)해돋는마을이장 정현일 목사, 신영림 내부교회와 엘드빌노인대학원장 최에스터 신한대교수는 대흥동주민센터(동장 양성주와 함께 7월 28일 노인대학에서 '대흥동 어르신 밥사랑 돌봄과 나눔' 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로 심각한 상황에서도 철저한 방역과 함께 소외되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모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사랑의 대접과 여름모자와 마스크 선물세트들을 증정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양천구 신민 대흥동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지역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정현일 목사님과 봉사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흥동에 단 한분도 굶는 어르신이 없게끔 애도록 동주민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적극 어르신들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현일 이장정은 인사말을 통해 "양천구동장과 김영대 복지팀장, 김희영 총무팀장께서 직접 참석해 아랫고소와인 쪽방촌과 독거어르신께 따뜻한 사랑으로 대접과 선물로 섬겨 주신데 감사함을 전하고 코로나19로 힘든시기이지만 동주민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해 공공성과 종교의성을 통해 더욱 어르신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돋는마을은 매주 5회 무료급식 섬김사업과 함께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2월부터 대체식으로 섬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코로나19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주)수분대표 자선금으로부터 하이드로 아이와서를 기증받아 수 소생아인전지대를 형성하여 대체식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웨신대, '융합형 인재'

양성 위해 석사 융합과정 신설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정인찬, 이하 웨신대)가 오는 2학기부터 대학원대학 최초로 석사 융합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웨신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석사 융합과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웨신대 석사 융합과정은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신학, 미용(비디)학, 미술치료학, 음악치료학, 서비스경영학, 평생교육학, 평생교육학, 카이로프랙틱 자연치유학, 영성치료학 등 웨신대에 설치된 있는 다양한 전공을 학생 본인이 자유롭게 융합해 설계할 수 있는 과정이다.

웨신대 석사 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원하는 전공

두 개를 선택해 각 전공의 과목을 이수하게 되며, 총 5학기 이수 후 2개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학습 과정은 원하는 전공 두 개 선택 → 매 학기 각 전공과목을 2과목씩 4과목 이수(4학기 동안 총 16과목) → 4학기 이후 한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 → 1학기 추가 이수 후 나머지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 순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 전공과 상담심리학 전공 융합 과정을 선택한 학생은 매 학기 사회복지학 전공과 상담심리학 전공과목을 2과목씩 총 4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이렇게 4학기를 이수하면 먼저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상담심리학 전공을 한 학기 더 추가 이수해 상담심리학 석사학위를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통받고 있는 노숙인을 도와주세요”

서울역노숙인섬김이 최성원 목사 긴급호소

(사)서울역노숙인지원센터대표 최성원 목사가 폭염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 긴급하게 관심과 후원을 요청했다.

노숙인들은 평생 건강과 위생관리가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 다수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누구에게나 더 치명적이다. 특히 요즘같이 폭염으로 인해 갈 곳이 없어 쉼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노숙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날에는 수십 또는 수백 명의 노숙인들이 감염의 위험에 그나마의 장기간도 있을 수 있다.

서울역 노숙자 지원센터는 노숙인에게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무단위와 싸움 생략품(음료) 생수 휴지, 바늘, 폭염키트(이 필요하지 않음)가상 후 원까지 50%이하로 줄어 맨몸으로 버티고 있다.

현재 서울역노숙자지원센터에는 약 20명의 노숙자가 잠시 생활하고 있으며 그밖에 많은 노숙자들의 원대 되고 있다. 대표 최성원 목사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로서 외길 기도로 다른 것은 없다. 후원자들과 독자들에게의 관심이 더욱 필요로 때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너무나 부족한 상태



다라며, "노숙인들이 사회인으로 재출발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독자들의 후원과 응원은 이들에게 전하는 응원이 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후원을 부탁했다.

현대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하지만 노숙인들에게는 철저하게 고립된 전쟁터가 되고 있다.

코로나19판으로도 박찬대 폭염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노숙인들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그나마 손길은 이들에게 생명이 되어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사랑의 원자탄이 될 것이다.

(010-3062-8282, 후원: 국민 47401-01-246248 서울역노숙자지원센터)

CBS 성경 유튜브 채널 '알렘바이블' 공식 오픈

어린이 성경 애니메이션과 오디오 성경 서비스 시작

CBS가 만든 성경 유튜브 채널 '알렘바이블'이 공식 오픈했다. 7월 초 공식 오픈한 '알렘바이블'은 성경 애니메이션과 오디오 성경을 제공하는 오디오 성경 등 성경 콘텐츠를 중심으로 서비스하게 된다.

이처럼 애니메이션과 오디오 성경,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편지장조를 시작으로 승화한 예수님까지

총 10편을 제작해 어린이들이 읽고 재미있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성경 애니메이션은 10세 이하 어린이 시청자 또래의 눈높이에 맞게 부드러운 그림체와 다양한 표현으로 성경 속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오디오 성경은 CBS 애니메이션들의 맑은 목소리로

은혜로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신학경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CBS는 알렘바이블 채널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큰 위안과 용기를 주고 특히 성경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어린이 성경교육 및 육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전도의 문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

한 달에 적어도 한 명은 전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니 일년이 지나도 한 명도 전도 못하는 해가 많아져 내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기도 중에 지옥불구덩이 속에서 자신의 다섯 형제들을 지옥에 오지 않게 구원해 달라고 애달게 기도하는 부지와 나사로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내부 드디어 나사로의 손가락에 한방울의 물을 찍어 자기 혀를 사면해 해달라는 부지의 자옥 정원은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탄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다시 세워 드디어 근한 신왕을 가진 나 대신 불구덩이 속 부지를 구원해줬다.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니 답이 오직 하나였습니다. 주님 한 번만 배우세요! 나도 이제 불구덩이에서 간절히 자와 같이 전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 전도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중 주인 사장님 부부, 새벽예배 마치고 새벽에 공원에 나가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 아파트 상가

의 부동산 주인, 슈퍼마켓 주인, 목욕탕의 손님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대상자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다 마스크 쓰고 하는 능력전도구나! 단순명료하게 핵심만 짚어 머리를 맡아내고 순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낚는 야구가 되어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자기운을 팔아서 마스크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미자립교회에 찾아가 마스크를 전달하고 가족세트전도로 배운 대로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렘바이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교회 김동원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강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혜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컵속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로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기금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v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응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202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신학교 목회자와 신학생을 위한 세미나



청도수양관 전경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이상규 박사
부산대 신학박사
고신대학교 명예교수김장인 목사
교단 중추회장
목양제일교회 담임정기영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이사장
부산서로교회장
순복음세움교회 담임한명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학장
예하성부산신학교 학장

일시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세움교회 청도수양관

(경북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 전화문의 051) 731-4202)

주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신학교

이사장 정기영 목사 · 학장 한명점 목사

초대시

전혜은 // 은혜와 진리교회 편지

씨앗 심는 날

오늘은
씨앗 심는 날
섬김의 씨앗을 심어
풍요의 내일을 준비하는 날

섬기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
본을 보여주셔서 응원하시니
순종하며 따라가세 찬양하면서..



보혈의 공로
생각하면 마음 다해 섬겨야지..
기왕지사 섬김이면 삼급되게 섬기리라

오늘 기회 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화목하게 씨앗 심는 일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 자부하며
섬김의 씨앗 뿌려 사랑열매 맺으리라

1년에 서너번 만나볼까가 있다. 늘 수고하시는 여성봉사의 회원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일 년에 몇 번은 죄송할 뿐이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오면 감사함으로 섬기게 된다.

무더운 여름 취약계층 위해 쿨루프 시공 지원

구세군, 열 차단 효과 페인트 ... 실내온도 낮춰 온실가스 줄인다

구세군 한국국교(사령관 장민희, 이하 구세군)가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쿨루프(Cool roof) 캠페인' 및 '쿨루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세군과 NH농협은행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22곳을 선정하고, 하얀색 쿨루프 페인트 시공과

쿨루프 지원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쿨루프는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반사 및 열 차단 효과가 있는 페인트를 시공하여 열 축적을 막고 건물의 실내 온도를 낮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7월 28일(수) 은평의 마을을 시작으로 무더위에 취약한 농촌지역의 사회복지시설 22곳에 쿨루프를 시공하며, 풍도시, 유대읍선봉기 여름이불, 여름 보양식인 삼계탕으로 이루어진 쿨루프 100세트도 함께 전달한다.

구세군 장민희 사령관은 "작년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살리기 캠페인을 농협은행과 함께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농촌의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쿨루프 지원을 하게 됐다"면서 "유난히 더운 여름 취약계층들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냉방에너지 절감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세군의 역할을 해 나간다고 밝혔다."

한편 구세군은 1947년부터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특별협의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아 활동을 하고 있으며, UN이 2015년 발표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기후 변화와 관련된 13개 목표와 기후 변화 관련 UN 활동에 구세군의 목소리를 내며 참여하고 있다.



사설

만군의 여호와가 보호할 것이라

한민연합총회는 남북 대화와 무관하게 수십 년 전쟁 해운 동맹 지원의 힘이 및 반격 원천이다. 그런데 국가 정보원이 간여자의 주권을 전담하며 한민연합총회 중단(축선) 수을 촉구했다.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북한은 지난 번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서해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총살·화형 하고도 진지하게 사과한 적도 없다. 북한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통선선을 열었다가 끊었다가 하기를 지극히 자주 여섯 차례나 반복했다. 통선선이 다시 연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남북 신뢰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는 예측할 수 없다.

북한 행동이 한미대 대가자 못하고 그저 차분히 바란다는 식의 행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그동안 수도없이 겪어왔다. 통선선 복원으로 남북 정상회담도 당장 열릴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기본적 인권의 도를 넘어서는 인권침해의 말 한마디에 감동했다. 연락 사무소를 세워 남북 대화의 상징이라며 자적으로 신념 인물들이 쫓아 따는 한미대도 못하냐고 북한은 북에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민연합총회를 연하리라고 연락까지 써서 북미라기에 노골적이다.

상대는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다. 핵과 미사일로 중무장한 자들은 모든 포카스를 남침에 맞추고 수만과 방방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대량 살상이 가능한 핵무기, 생물·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비대칭적 위협을 우방국 미국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대북 방어태세를 갖추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를 위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이를 두려워할 것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막을 한 비대칭적 위협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북핵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우리 온 국민이 위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에 하나님께 한국을 보호해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새가 날개 차며 그 새끼를 보호할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요루하며 간지며 뛰어들어 구원하리라 하였느니라'(사 31:46)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정부가 다른 대중시설들은 열게 하고, 오직 교회만 잠정적인 예배를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원당하지 못하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정부의 방역 방침을 철저히 지켜왔다. 그런데도 교회만을 묶어둘 때는 '정치 방역'은 옳지 못하다.

을 2월에는 정부 당국자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드린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예배 교회는 무조건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는가? 이는 사실상 교회 폐쇄이다.

정부가 근거도, 기준도 원칙도 없는 기준에 교회에서의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 운영까지 가로막고 나선 것은 매우 부당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독재적 발상이다. 이제라도 '정치 방역'을 계속 고집하지 말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 반종교적인 정부라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힘들고 어려운 때 국민들이 신앙을 통해 용기와 희망의 끈을 붙잡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지 바란다.

한국교회도 예배 문제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 뜻은 한자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목회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자신의 종교개혁'이라는 말로, 헌관식 같은 경우들이 있었다. 이제는 한국교회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회개하고, 헌정 예배를 드렸다고 자랑으로 내세우기도 말아야 한다.

예배에서 '비대면'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국민의 어떤 기본권과도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중에는 이웃을 의식하여 자발적으로 비대면을 시행했다는 교회도 있을 것이다. 역시 이것도 비난할 필요가 없다.

한국교회의 과제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예배에 대하여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데 하나님이 도와야 한다. 한국교회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문제에 있어, 두 목소리를 내는 여러 현상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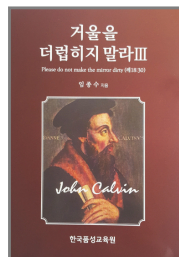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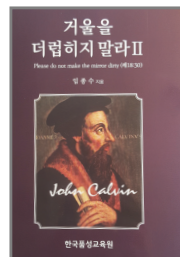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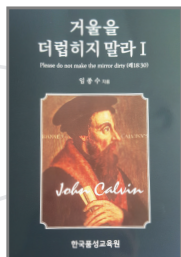
● 편집 고문: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배성환

●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할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밭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를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게좌번호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직,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든 어난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면 7가지와 자기 개발의 부면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면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겉과 겉,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입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익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익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도행전 13:1-3에 예하성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질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열심.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수시
-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수시
-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30,000원
-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